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임소현 이영광



책임연구원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보조연구원 **이영광**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조사에서 2020년 12월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중장년 차상위는 총 173,278명(117,188 가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여 명, 2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울은 총 37,702명(22,603 가구)으로 전국의 약 21.8%를 차지함.
- 차상위계층이 경제활동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장년은 연령,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 고찰
 - 법적·제도적 기준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의 개념 및 범위 파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기관의 연구 보고서 및 학술 논문과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안내, 운영지침 등을 통해 중장년 차상위의 정의 및 특징 분석

-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인 도출

○ FGI (인식 및 요구조사)

- 대상: (1차) 지역자활센터 중장년 차상위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2차) 자활근로 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및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50+세대 당사자 등 총 22명
- 내용: (1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특징,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2차)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소득 및 경력형성, 일자리에 대한 요구, 적합 일자리 등

○ 전문가 자문

- 대상: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중장년 일자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 당사자 등 총 8명
- 내용: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대상 및 활동조건의 적절성,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화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

-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사업(사례)에 대한 문헌 고찰 결과와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을 개발하였음.

- (1안)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 채용 우대조건 적용
- (2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및 적합 일자리
- (3안)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

-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음.

- 중장년 일자리/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 3인, 중장년 일자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 3인,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당사자 2인, 총 8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 1안은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및 활동 조건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매겨 2022년 보람일자리사업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과 다른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음(〈표 1〉 참조).

〈표 1〉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채용 우대조건(안)

구분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참여대상	•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활동시간	• 월 57시간 이내	• (1안) 월 60~100시간 + 최소 6개월 이상 • (2안) 월 80시간, 월 100시간, 월 120시간 중 선택 + 최소 6개월 이상
활동비	• 525,020원=57시간×9,211원 • 1일 1만 5천원의 교육실비, 상해보험 가입	• (1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2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4대보험 적용
기타	-	• 중장년 차상위 일정 비율 할당제 적용 • 중장년 차상위 특성 및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상태, 청소년 및 장애인 자녀 동거 여부, 부모 부양 여부 -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 - 주된 일자리 경험 및 전공, 희망 직무, 직업 가치관, 재취업에 대한 태도 등

주)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에 적용 가능한 변경된 채용 우대조건은 파랑색으로 처리하였음.

- 2안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 보람일 자리를 비롯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추가 적용 가능한 적합 일자리 영역과 직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3안은 새로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표 2〉 참조)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더불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하였음.

〈표 2〉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 구성 및 예시(실버인지지도사)

구분	내용	비고
1. 마음챙김 정서지원 프로그램	• 마음챙김에 기반한 힐링 프로그램: 자아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고취 • 기초소양교육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공통과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함.	공통
2. 직무역량강화교육	• 캠퍼스 혹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연계 • (예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과정 수강 - 실버인지지도사 혹은 실버놀이지도사 등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리마인더 교육 실시 → 직무역량강화교육은 교육과정 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음. • 활동처에 대한 이해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직무별 진행
3. 일자리 사업	• 일자리 사업 참여 • (예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 사업내용: 시니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치매 예방 전문가 양성 - 활동인원: 예산에 맞는 인원 설정 - 사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활동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양로원,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 주요활동: 노인화상카드를 활용한 화상 치료, 그림책 인지 프로그램, 전래놀이를 통한 인지놀이, 원예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실버 레크레이션 활동, 시니어 보드게임 등 - 수행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기대효과: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활동의 경험을 더하게 되면 활동처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가능,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으로 활동 가능,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원봉사단/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50+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수행 가능	-
4. 사후관리	• 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경력 계획을 위한 상담(50+컨설턴트 연계)	공통
	• (예시) 실버인지지도사 - 노인돌봄제공자를 위한 정서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무별 진행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활용 방안

- 국가 차원에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과 노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고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이 요구됨.

-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일부 있으므로 재단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보다 개별 사업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험에 그치는 일자리 제공은 중장년 차상위계층에게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3안으로 제안한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는 직종을 특화하는 것이 아닌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중장년 차상위 정의 및 특징

제1절 중장년 차상위 정의	9
제2절 중장년 차상위 특징	12
제3절 소결	14

제3장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제1절 국내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17
1.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17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25
3. 경기도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8
제2절 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30
제3절 소결	32

제4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조사 개요	35
1. 조사 설계 및 절차	35
2. 조사 대상	36
3. 조사 내용	38
제2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분석 결과	40
1.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40
2.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	50
제3절 소결	67
1.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67
2.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8

제5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제1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73
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조건(1안)	74
2.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및 적합 일자리(2안)	77
3.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3안)	81
제2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활용 방안	82

참고문헌	85
------	----

표목차

〈표 2-1〉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의 기준	11
〈표 2-2〉 서울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자격별 현황(2020년 12월 기준)	13
〈표 2-3〉 부처별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지원 사업 적용 대상 범위	13
〈표 3-1〉 2020년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촉진 참여자 현황	18
〈표 3-2〉 2020년 고용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 참여자 현황	19
〈표 3-3〉 2020년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참여자 현황	20
〈표 3-4〉 2020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자 현황	21
〈표 3-5〉 2020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 사업장 현황	21
〈표 3-6〉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자 현황	22
〈표 3-7〉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23
〈표 3-8〉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 참여자 현황	24
〈표 3-9〉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현황	25
〈표 3-10〉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6
〈표 4-1〉 조사 설계	35
〈표 4-2〉 조사 절차	36
〈표 4-3〉 2차 FGI 참여자 특성	37
〈표 4-4〉 1차 FGI 대상에 따른 조사 내용	39
〈표 4-5〉 2차 FGI 대상에 따른 조사 내용	39
〈표 5-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조건(안)	74
〈표 5-2〉 참여대상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75
〈표 5-3〉 활동시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75
〈표 5-4〉 활동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76
〈표 5-5〉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채용 우대조건(안)	77
〈표 5-6〉 중장년 차상위 적합 일자리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79
〈표 5-7〉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 구성(안)	81

그림목차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범위 변화

10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조사에서 2020년 12월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중장년 차상위는 총 173,278명(117,188 가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여 명, 2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울은 총 37,702명(22,603 가구)으로 전국의 약 21.8%를 차지함.
- 차상위계층이 경제활동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목표는 취·창업을 통한 일반(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채정, 2013).
 - 차상위층에 대한 자활 성과관리를 위해서 취업지원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의 진입을 주요 성과지표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류기락, 2014).
- 특히 중장년은 연령,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근로를 통해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경력을 형성하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담당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은 총 18개로 그 가운데 8개의 일자리에서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였음.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은 약 2%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전체에 적용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첫째, 중장년 차상위 정의 및 특징을 파악한다.
- 둘째,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사례)을 분석한다.
- 셋째,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 넷째,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중장년 차상위 정의 및 특징
 - 중장년 차상위 정의
 - 중장년 차상위 특징
-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 국내 차상위 일자리 사업
 - 국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조사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요구 조사 개요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요구 분석 결과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활용 방안

2.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법적·제도적 기준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의 개념 및 범위 파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기관의 연구 보고서 및 학술 논문과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안내, 운영지침 등을 통해 중장년 차상위의 정의 및 특징 분석
 -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인 도출

○ FGI (인식 및 요구조사)

- 대상: (1차) 지역자활센터 중장년 차상위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6명, (2차) 자활근로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및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50+세대 당사자 16명 등 총 22명
- 내용: (1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특징,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2차)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소득 및 경력형성, 일자리에 대한 요구, 적합 일자리 등
- 기간: 2021년 8월~9월

○ 전문가 자문

- 대상: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중장년 일자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 당사자 등 총 8명
- 내용: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대상 및 활동조건의 적절성,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화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
- 기간: 2021년 9월



제 2 장



중장년 차상위 정의 및 특징



제2장

중장년 차상위 정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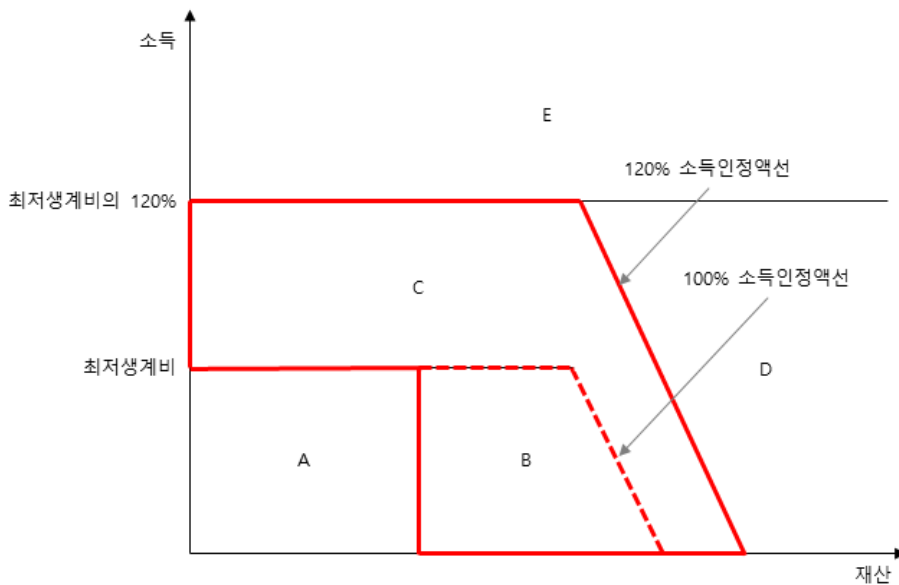
제1절 중장년 차상위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즉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21).
 - 차상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부재하여 일부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차상위계층이라는 대상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함(보건복지부, 2021).
 - 이때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출함.
- 차상위의 사전적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나 위치를 의미하고 차상위계층은 근접빈곤(near-poverty), 한계빈곤층(margin of poverty), 잠재적 빈곤계층(latent poverty class) 등의 개념과 유사함(이현주 외, 2008; 함영진, 2018).
 - 영국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1960년대 초 소득과 박탈수준의 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부조기준(National Assistance Scale)의 140%를 기준으로 빈곤률을 계산하면서 이 기준의 이하의 집단을 한계빈곤층이라고 칭하였음(Townsend, 1979).
 - Klevens & Luman(2001)는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선에 대한 소득의 비율이 100% 이상 125% 미만을 근접빈곤이라고 구분하였고, 호주는 빈곤선의 120% 미만으로 규정하였음(Saunders, 1996).

- 우리나라에서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다른 국가도 근접빈곤, 한계빈곤층, 잠재적 빈곤계층 등의 개념으로 빈곤선 이상의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자 함.
- 이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절대 빈곤층에 비해 각종 사회부조제도의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Lewit et al., 1997) 그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열악할 수 있음(김교성, 2009).

○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음.

- A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B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C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근접빈곤층에 해당함.
- 2006년 법 개정 전의 차상위계층은 B+C+D였으나 2006년 개정 이후 B+C로 변화하였음(강신욱 외., 2015; 이현주 외., 2017; 이해원, 2012).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범위 변화

자료: 이현주 외. (2017).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p.27. 재인용.

○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차상위계층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적 기준과는 다르게 선행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연구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소득인정액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구의 소득기준만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한다면 소득의 변화 혹은 차이로 인한 급격한 지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법적으로 정의한 차상위 계층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표 2-1〉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의 기준

연구자	차상위계층 기준
이현주(2000)	가구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50% 이하
윤홍식, 김혜영, 이은주(2005)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00%~210% 세분화하여 구분
이태욱(2009)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80%
김교성(2009)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150%
Hokayem & Heggeness(2014)	가구소득 100%~125%
이상봉, 한준(2016)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

자료: 김희주. (2017). 차상위계층의 특성과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중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재구성.

○ 이 연구에서 중장년 차상위는 50+세대인 만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의 범위를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만 40세에서 67세 가운데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정의함.

-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시범 운영에서 참여대상의 범위는 만 40세에서 67세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는 중장년으로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조항을 두었음.
- 기존 보람일자리와의 차이점은 선발 시 ① 대상의 연령이 일반 참여자는 만 50세에서 만 67세이지만 차상위층은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만 40세부터 만 67세까지로 적용하고, ②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서울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전체) 등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제2절 중장년 차상위 특징

- 중장년 차상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981,486명이고 그 가운데 중장년(4060세대)은 298,435명으로 약 30.4%를 차지하고 서울은 155,934명으로 약 15.9%에 해당함.
 -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을 성별, 연령대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3,472명, 여성은 92,46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은 55,963명으로 서울시 전체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약 35.9%를 차지함.
 - 노원구(11,668명), 강서구(11,092명), 중랑구(10,331명) 순으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비율이 높았고, 중구(2,009명), 종로구(2,141명), 용산구(2,349명)는 비율이 낮았음.
 - 차상위 자격은 <표 2-2>와 같이 구분되고, 한부모가족을 제외하고 중장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차상위 자활(약 85.3%),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순이었음.

〈표 2-2〉 서울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자격별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계	43,046	1,017	286	13,069	5,317	37,586	55,613
남성	18,743	516	193	5,440	2,689	15,153	20,738
여성	24,303	501	93	7,629	2,628	22,433	34,875
중장년	13,003	868	0	3,616	1,859	17,100	19,517

-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에서 적용하는 차상위 범위를 살펴보면(〈표 2-3〉 참조) 기준중위소득의 50~100% 이하를 적용하고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은 재산, 직접일자리사업은 1인가구 적용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35만원)을 지원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혹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사업에 따라 대상의 범위가 상이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의 50~100% 이하를 적용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2-3〉 부처별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지원 사업 적용 대상 범위

부처	사업명	대상 범위
보건복지부	차상위 자활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II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직접일자리사업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

-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차상위계층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 고연령, 단일가구, 저학력,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이 아닐수록 그 비율이 높음.

- 김교성(2009)은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하였고 그 결과 여성, 노인, 한부모가족, 저학력, 비정규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일수록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빈곤층을 일반, 수급, 차상위계층으로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본 이태욱(2009)의 연구에서는 가구특성과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가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음.
- 이상봉, 한준(2016)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빈곤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차상위계층 가운데 여성 가구주, 고연령, 자영업자, 저학력, 농어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제3절 소결

- 차상위계층의 정의 및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는 연구자의 관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범 운영 중인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은 서울형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적용함.
- 이 연구에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는 만 40세에서 67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의함.
- 차상위계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이며 중장년 차상위계층은 약 30.4%, 서울시의 경우 약 15.9%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한부모가족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적용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차상위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예를 들어 성별, 연령, 가구 수, 최종 학력,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제 3 장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제3장

국내·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제1절

국내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1.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혹은 차상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고용노동부, 2021)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취업지원-취약계층 취업촉진) 취약계층 취업촉진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에 의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임.
 - 사업 목적: 고용센터가 직접 또는 민간기관 위탁으로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도모함.
 - 지원 내용: 취업촉진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위탁사업비 등 지원하며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은 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수행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민간기관의 심리 상담사가 고용센터에 상주하여 실직 및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고용센터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채용박람회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채용박람회를 위탁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지원함.
 - 참여자 현황: 2020년 기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총 192,205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13,712명, 채용박람회는 263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중장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41.9%,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70.1%, 채용박람회 49.4% 참여함(<표 3-1> 참조).

〈표 3-1〉 2020년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촉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역량강화 전체	228,518 (100)	97,677 (42.7)	130,837 (57.3)	119,895 (52.5)	44,845 (19.6)	51,029 (22.3)	12,745 (5.6)
	집단상담 프로그램	192,205 (100)	89,944 (46.8)	102,259 (53.2)	108,863 (56.6)	30,739 (16.0)	41,651 (21.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3,712 (100)	5,229 (38.1)	8,482 (61.9)	2,639 (19.2)	4,117 (30.0)	5,493 (40.1)
	채용박람회	263 (100)	167 (63.5)	96 (36.5)	132 (50.2)	101 (38.4)	29 (11.0)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채용박람회	263 (100)	167 (63.5)	96 (36.5)	132 (50.2)	101 (38.4)	29 (11.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취약계층취업촉진.

○ (고용서비스-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의3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사업 목적: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다음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함.
- 지원 내용: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함.
- 참여자 현황: 2020년 기준 고령자 인재은행 참여자는 17,497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의 1.3%, 취업지원 유형의 1.7%였고, 여성 참여자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여성: 75.4%, 남성: 24.6%), 장년(60.4%), 고령(25.1%), 중년(14.4%) 순으로 나타남(〈표 3-2〉 참조).

〈표 3-2〉 2020년 고용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고령자 인재은행	17,497 (100.0)	4,303 (24.6)	13,194 (75.4)	-	2,525 (14.4)	10,567 (60.4)	4,386 (25.1)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중장년층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 인재은행 정책에 참여한 중장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115.3일로 임금수준은 67.5%, 취업률(180일 이내)은 23.7%, 고용 유지율(180일 이상)은 53.7%로 나타남.
- (고용서비스-중장년층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의 3에 의거하여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사업 목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및 창업, 전직지원,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함.
- 지원 내용: 생애경력설계,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생애경력 설계는 재직 단계부터 체계적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재직자는 1:1 상담, 심리안정 및 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구직자는 1:1 상담, 취업 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참여자 현황: 2020년 기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참여자는 114,729명으로 고용 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8.7%,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11.3%였고 남성 참여자가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남성: 72.7%, 여성: 27.3%), 장년(53.6%), 중년(34.0%), 고령 (12.3%) 순으로 나타남(〈표 3-3〉 참조).

〈표 3-3〉 2020년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중장년일자리희 망센터	114,729 (100.0)	83,377 (72.7)	31,352 (27.3)	170 (0.1)	39,050 (34.0)	61,446 (53.6)	14,063 (12.3)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능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중장년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정책에 참여한 중장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173.1일로 임금 수준은 107.8%, 취업률(180일 이내)은 31.1%, 고용 유지율(180일 이상)은 61.6%로 나타남.
- (고용장려금-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의거하여 고령자 대상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사업 목적: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
 - 지원 내용: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되며 사업주 지원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포함되고 근로자 지원은 임금피크제, 장년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함.
 - 참여자 현황: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 받은 근로자 수는 580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전체 근로자 중 0.02%,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 중 0.04%를 차지하였고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남성: 66.6%, 여성: 33.4%) 장년(94.8%)이 대부분이었음(〈표 3-4〉 참조).

〈표 3-4〉 2020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580 (100.0)	386 (66.6)	194 (33.4)	0 (0.0)	1 (0.2)	550 (94.8)	29 (5.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참여 사업장 현황: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310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1%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2%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음(〈표 3-5〉 참조).
- 서비스업(53.2%)과 제조업(45.2%)의 참여 비중이 높았고 건설업(1.3%)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표 3-5〉 2020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310 (100.0)	297 (95.8)	12 (3.9)	140 (45.2)	4 (1.3)	165 (53.2)

주)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지원).

-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 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사업 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
- 지원 요건: 채용은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임.
- 참여자 현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 받은 근로자 수는 2,158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1%,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1.3%를 차지하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며(남성: 72.2%, 여성: 27.8%) 장년(52.7%), 중년(42.6%)의 지원 비중이 높고 고령(4.7%)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표 3-6〉 참조).

〈표 3-6〉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장년고용지원	2,158 (100.0)	1,559 (72.2)	599 (27.8)	0 (0.0)	919 (42.6)	1,137 (52.7)	102 (4.7)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지원).

- 참여 사업장 현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1,272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4%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중 44.0%에 해당하고 모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음(〈표 3-7〉 참조).

- 서비스업(49.0%)과 제조업(46.0%)의 참여 비중이 높았고 건설업(4.8%)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표 3-7〉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장년고용지원	1,272 (100.0)	1,271 (99.9)	0 (0.0)	585 (46.0)	61 (4.8)	623 (49.0)

주)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지원).

- (직접일자리-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사회공헌/신중년경력형)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사업 목적: 만 50세 이상의 퇴직한 중장년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봉사, 근로 등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내용: 퇴직전문인력(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의 경력을 봉사적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수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공함.
 - 신중년사회공헌 참여자 현황: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의 참여자는 11,168명으로 직접 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1.2%, 사회봉사복지형 전체 참여자의 41.5%에 해당하며 장년층이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령(28.5%), 중년(16.4%) 순으로 나타남(〈표 3-8〉 참조).

〈표 3-8〉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사회봉사복지형 전체	26,914 (100.0)	11,932 (44.3)	14,982 (55.7)	14 (0.1)	2,426 (9.0)	9,535 (35.4)	14,939 (55.5)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	13,478 (100.0)	4,461 (33.1)	9,017 (66.9)	0 (0.0)	2,481 (18.4)	7,512 (55.7)	3,485 (25.9)
신중년 사회공헌	11,168 (100.0)	3,439 (30.8)	7,729 (69.2)	0 (0.0)	1,828 (16.4)	6,161 (55.2)	3,179 (28.5)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와 같지 않을 수 있음.

주2)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두 개의 내역 사업이 각기 다른 세부유형에 포함되어 유형별 인원 산출 시 동일 유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포함함(신중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신중년사회공헌: 사회봉사복지형).

주3)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사회공헌).

- 신중년사회공헌 정책에 참여한 중장년 가운데 취약계층 참여율은 38.2%이었고 이 정책으로 취업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141.8일, 취업률은 6.4%, 고용 유지율(180일 이상) 60.4%로 나타남.
- 또한, 신중년사회공헌 정책 참여 이후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 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일자리 희망자는 43.0%였고 실제 이행한 경우는 23.3%에 불과함.
- 신중년경력형 참여자 현황: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참여자는 2,310명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의 0.2%, 소득보조형 전체 참여자의 0.3%에 해당하여 참여자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장년층이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년(28.3%), 고령(13.2%) 순으로 나타남(〈표 3-9〉 참조).
- 신중년경력형 정책에 참여한 중장년 가운데 취약계층 참여율은 48.9%이었고 이 정책으로 취업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82.7일, 취업률은 51.8%, 고용 유지율(180일 이상) 26.0%로 나타남.

- 또한, 신중년경력형 정책 참여 이후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 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일자리 희망자는 68.9%였고 실제 이행한 경우는 22.5%에 불과함.

〈표 3-9〉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소득보조형 전체	870,163 (100.0)	287,255 (33.0)	582,908 (67.0)	13,696 (1.6)	30,007 (3.4)	72,780 (8.4)	753,680 (86.6)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3,478 (100.0)	4,461 (33.1)	9,017 (66.9)	0 (0.0)	2,481 (18.4)	7,512 (55.7)	3,485 (25.9)
신중년 경력형	2,310 (100.0)	1,022 (44.2)	1,288 (55.8)	0 (0.0)	653 (28.3)	1,351 (58.5)	306 (13.2)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와 같지 않을 수 있음.

주2)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두 개의 내역 사업이 각기 다른 세부유형에 포함되어 유형별 인원 산출 시 동일 유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포함함(신중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신중년사회공헌: 사회봉사복지형).

주3)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경력형).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으로 구분되고 일자리 관련 지원은 차상위 자활근로와 취업성공 패키지 (현 국민취업제도)임.
 -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고 직접 일자리 및 급여(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35만원)를 제공함.
-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약 5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임.

- 사업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통합 및 탈수급 역량 강화를 유도함.
- 사업 내용: 대상자의 근로 능력 수준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를 지원함.
- 참여자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는 44,556명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의 4.6%, 소득보조형 전체 참여자의 5.1%에 해당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54.7%, 남성: 45.3%), 장년(42.4%), 중년(40.3%), 고령(6.6%) 순으로 나타남(〈표 3-10〉 참조).

〈표 3-10〉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소득보조형 전체	870,163 (100.0)	287,255 (33.0)	582,908 (67.0)	13,696 (1.6)	30,007 (3.4)	72,780 (8.4)	753,680 (86.6)
자활사업	44,556 (100.0)	20,179 (45.3)	24,377 (54.7)	4,760 (10.7)	17,947 (40.3)	18,903 (42.4)	2,946 (6.6)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와 같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 정책을 통해 취업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103.5일, 취업률은 7.2%,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22.2%로 나타남.
 - 자활사업은 최대 60개월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반복참여 제약은 한계가 있고 2019년 기준 여성 평균 43.7개월 참여하였고 남성은 평균 34.5개월 참여하였음.
 - 또한, 자활사업 정책 참여 이후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 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일자리 희망자는 44.3%였고 실제 이행한 경우는 25.7%에 불과함.
- 각 지역에서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10년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고 현재 전국 지역자활센터는 총 250개, 서울은 30개로 전체 지역자활센터의 약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확대형 센터가 16개로 서울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모가 큰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윤혜란 외., 2021).

- 자활기업은 업종이 청소, 집수리, 음식점, 배송, 사회서비스(예: 간병), 식품생산, 재활용, 유통 및 기타로 구분되는데 2019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청소 21.6%, 음식점, 배송 및 기타 16.9%, 사회서비스 13.5%, 집수리 8.1%, 재활용 4.1%, 유통 2.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종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집수리와 재활용 및 유통은 낮은 편이었음.
 -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고 2019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시장진입형 1.7%, 사회서비스형 5.2%, 인턴형 0.2%, 근로유지형 2.5%가 참여하여 자활사업의 9.5%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기준 40-50대가 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31.0%)이었으며, 서울수도 마찬가지로 40-50대 62.6%, 60대 이상 26.7%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참여자 수급형태는 대부분이 조건부 수급자(전국: 32.5%, 서울시: 62.9%)였고 서울시는 전국보다 조건부 수급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차상위층은 전국 2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9.4%에 그침.
-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우수 자활센터 및 우수 자활기업 가운데 울산광역시자활센터와 완주지역자활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울산광역시자활센터) 2021년 기준 울산의 자활기업은 총 19개소(청소·소독업 11개소, 인테리어 공사업과 식·음료업(카페) 2개소, 부품조립업, 반찬, 세탁, 돌봄 각각 1개소)가 있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업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울산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울산광역시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지역자활특화사업 ‘전국 청소 자활기업 방역 프랜차이즈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K-디펜스 방역브랜드를 만들고 울산 청소방역 사업단(기업포함) 9곳을 묶어 규모화 하였으며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운영매뉴얼과 소독매뉴얼을 제작함.
 - 울산시의 2021년 자활지원계획은 자활일자리에 참여 중인 대상에 대한 자활일자리 제공과 함께 전년대비 자활급여 1.5% 인상, 자활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과 자립 지원을 통해 탈수급율 68%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운영 및 일자리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문제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0년 7월에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울산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이 자활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됨.

- (완주지역자활센터)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시장진입형)은 2016년 소규모 임대 사업장에서 완주 초코파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2019년 12월에는 제조 공장을 준공하고 현재 16명(2021년 기준)의 자활참여자와 함께 해피파이를 생산하고 있음.
- 완주군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서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제빵·제빵·바리스타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근로조건은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주 5일 근무이고, 급여(49,440원)와 실비(4,000원)를 포함하여 하루에 53,440원의 임금이 지급됨.
- 2020년 해피파이 브랜드명으로 '5gam만족(딸기맛, 망고맛, 코코아맛, 녹차맛, 찹보리맛)' 오색 파이를 출시하였는데 2021년 비스킷슈, 마늘빵, 모닝빵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음.
- 2021년 제조 공장 2층에 체험교육장을 증축하여 지역 내 아동, 장애인, 관광객이 직접 해피파이를 만드는 체험을 제공하여 해피파이 홍보 및 완주군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결혼식장 답례품, 삼례에 있는 해와달 카페 판매, 공공기관 매점 판매 등으로 판로를 넓혀가며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 제빵사를 채용하여 품질향상에도 힘쓰고 있음.

3. 경기도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¹⁾

-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공·공익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배움의 기회를 통해 민간일자리와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임.
- 근로 조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에 유기 계약직으로 10개월 간 근무하면서 경기도 생활임금(2021년 기준 시급 10,540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1일 84,32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4대보험 가입, 주·연차수당 지급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1)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의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지원 혜택: 1:1 매칭을 통한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 후 적응을 위한 멘토가 배정되며 직무·취업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가 최대 20만원 지원됨.
- ‘2021년 하반기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기’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23개 중의 한 조직의 직무설명자료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직무 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경제(금융·보험, 기획·회계·사무, 마케팅·판매·부동산, 사업관리), 문화(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관광·스포츠,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복지(보건·의료, 사회복지·보육·상담), 환경·안전(농림어업, 운전·운송, 환경·에너지·안전), 교육·혁신(건설·기계·화학, 교육, 섬유·의복, 인쇄·목재·가구·공예, 전기·전자·IT) 5대 분야 17개 직무로 분류함.
 - 직무 분류에 따른 직무명과 필수 자격 및 우대 자격을 기재하고 기관에 대한 소개, 주요 업무, 수행 내용, 필요한 기술, 수행 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기관명: 000 사회협동조합
- 직무 분류 및 직무명: 경제-기획·회계·사무, 교육·혁신-교육
- 필수 자격: 해당 없음
- 우대 자격: 교육 및 인문계열 경력자 혹은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주요 업무: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수행 내용
 -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아동 및 시니어 돌봄 관련 교육을 계획하여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행하는 업무 수행(훈련생 선발 및 필요한 정보제공 등)
 -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 분석, SNS를 활용한 홍보 업무 수행
- 요구되는 기술
 -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업무의 우선순위 선정 능력, 보고서 작성, 의사소통을 문제없이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
 -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정보수집능력, 창의력 등
- 요구되는 태도: 일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는 진취성, 성실성,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제2절 국외 차상위 일자리 사업 분석

- 국외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는 구혜경 외(2020)의 연구 및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문헌은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자활 성공사례 14편을 제시하고 있고 사례 가운데 중장년이 참여 가능한 사례로 미국의 Rubicon program, Pioneer human services, 일본의 Swan bakery, 캐나다의 Furniture Bank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미국의 Rubicon program) 이 프로그램의 비전은 (East Bay 지역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미션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정하였음.
 - Rubicon program에 참여하는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이동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자산, 소득,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를 통해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산) 자산 형성, 소비자 보호, 신용 등급 복구 및 가계 예산 책정 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코치가 재정 평가를 수행함.
 - 재정 평가는 신용 등급 보고서 검토, 대차 대조표 작성, 예산 및 재정 목표 확인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가 부채 상환 및 저축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소득)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우며 제한된 일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위해 전직 지원, 현장 교육(실습), 자원 봉사 및 인턴십 등을 제공하여 이력서에 작성할 수 있는 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자리를 찾은 후에도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대학 혹은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력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건강 워크숍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줌.
 - 이와 같이 자산,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망 이외에도 주택 및 사례 관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직업교육 체계화를 시도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졸업 후 해당 프로그램의 교사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
- (미국의 Pioneer human services) 1963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상담을 함께 제공함.
 - 운영 초기 보잉사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어 카페 및 요식업 서비스, 이후 집수리, 식품 도매상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음.
 -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스스로를 낙인찍지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료, 친구, 이웃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도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줌.
- (일본의 Swan bakery)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애인, 중·고령자의 직업훈련을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1998년 장애인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한 개인의 투자금으로 설립되었음.
 -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어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Swan bakery’라는 고유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점을 프랜차이즈화 하여 지속 운영 중임.
 - 최저임금제가 아닌 능력제를 도입하여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각 지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른 지점을 설립하거나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도울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캐나다의 Furniture Bank)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역사회의 중고가구, 가정용품 등을 수거하고 필요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함.
 - 고용된 취업취약계층은 중고가구는 곰팡이나 집진드기로 인한 오염이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쳐서 고객들이 가구를 고를 수 있는 쇼룸으로 이동시켜 관리하는 역할을 함.
 -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캐나다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며 더불어 쓰레기 소각 비용,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적절한 가구를 사용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사회 모두에 기여함.

제3절 소결

- 자활사업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신체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각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제공한 이후 인턴십 경험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음.
- 인턴십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일자리 제공 및 임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참여과정에서 진단을 위한 초기 상담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3개월이고 자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동안의 보수교육 혹은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제 4 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분석



제4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및 절차

- 이 연구는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서울시 중장년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와 수혜 받는 주체로 구분하여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적합 일자리, 근로조건 및 채용 우대조건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요구와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음(〈표 4-1〉 참조).

〈표 4-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방법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대상	• 1차: 지역자활센터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 2차: 자활근로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및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50+세대 당사자

○ 이 조사는 <표 4-2>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하였음.

- (조사 지침서 작성)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우수사례 및 국외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 내용 및 진행 방향 등이 담긴 조사 지침서를 작성함.
- (FGI 참석자 모집 및 집단 구성) 지역자활센터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그리고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50+세대 당사자 등을 기준으로 참석자를 모집하였음.
- (FGI 진행) 2021년 8월~9월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 일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및 비대면(유선)으로 진행하였음.

<표 4-2> 조사 절차

구분	내용
조사 지침서 작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조사 내용 및 진행 방향 등을 반영한 조사지침서 작성
↓	
인터뷰 대상 모집 및 FGI 집단 구성	1차: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 - 지역자활센터 차상위층 및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 2차: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체 - 자활근로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50+세대 당사자
↓	
FGI 진행	연구 일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및 비대면(유선)으로 진행
↓	
보고서 작성	FGI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

2. 조사 대상

- (1차 FGI)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는 차상위층 비율이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담당자 6인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2차 FGI)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체는 총 16명으로 참여자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4-3>과 같음.

- 총 16명의 참여자 가운데 남성은 5명(약 31.3%), 여성은 11명(약 68.7%)이었고, 연령은 40대 1명, 50대 8명, 60대 6명, 70대 1명으로 대부분 50+세대(87.5%)이며 40대와 70대는 차상위 일자리 사업에 참여 증으로 50+세대의 전·후 의견을 청취해볼 수 있어 FGI 참여자에 포함하였음.
- 여성 참여자 가운데 4명(약 36.4%)은 1인가구에 해당함.
-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명, 전문대학 졸업 1명, 대학교 중퇴 1명, 대학교 졸업 6명, 대학원 졸업 3명이었고 대부분 참여자의 건강상태(무응답자 1명)가 양호했으나 기저 질환이 있거나 혹은 최근 수술로 인해 비교적 양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결혼 상태는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미혼 3명, 비혼 1명, 이혼 3명, 기혼 8명이었고, 부모 부양 및 동거 여부는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 부양을 하는 경우 1명, 부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경우 1명, 부양 예정인 경우 1명이 있었음.
- 자녀가 있는 중장년 차상위(무응답자 1명)는 11명이었고 막내 자녀의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으며(10대 1명, 20대 5명, 30대 4명, 40대 1명),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4명(자녀 10대 1명, 20대 3명), 자녀가 독립한 경우는 7명이었음.
- 은퇴 이전의 주된 일자리 및 전공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영, 회계, 총무, 영업, 판매 및 마케팅 분야 4명, 심리 상담 및 정서 치유 분야 3명, 미디어 분야(신문, 방송, 출판 등) 3명, 교육학 전공 및 교육 관련 업무 수행 2명, 건설 및 부동산 분야 1명, 무용 전공 1명, 산후 도우미 1명,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부 1명이 참여하였음.

〈표 4-3〉 2차 FGI 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건강 상태 1)	결혼 상태	부모 부양 동거 여부	자녀 유무	막내 자녀 나이	자녀 와의 동거 여부	주된 일자리/전공
A	남성	50세	대학교 졸업	양호	기혼	X	O	17세	O	건설/부동산학
B	남성	53세	대학교 졸업	양호	이혼	X (동거)	O	-	O	미디어(방송/영화)
C	남성	54세	전문대학 졸업	양호	미혼	O	X	-	X	경영 및 마케팅
D	남성	57세	대학교 졸업	양호	기혼	X	O	24세	X	출판

〈표 계속〉

〈표 4-3〉 계속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건강 상태 1)	결혼 상태	부모 부양 동거 여부	자녀 유무	막내 자녀 나이	자녀 와의 동거 여부	주된 일자리/전공
E	남성	60세	대학원 석사 졸업	양호	기혼	X	O	26세	O	영업 및 마케팅
F	여성	43세	대학교 졸업	양호	미혼	X	X	-	X	무용
G	여성	53세	고등학교 졸업	△	이혼	X	O	26세	X	주부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
H	여성	54세	대학교 졸업	양호	기혼	X	O	21세	O	신문방송학
I	여성	55세	고등학교 졸업	양호	비혼	부양예정	X	X	X	회계 및 총무
J	여성	59세	고등학교 졸업	△	기혼	X	O	32세	X	심리 상담
K	여성	60세	고등학교 졸업	양호	-	X	O	30세	X	영업 및 판매
L	여성	62세	고등학교 졸업	양호	이혼	△2)	O	35세	X	산후 도우미
M	여성	62세	대학교 중퇴	-	미혼	X	X	X	X	학원 강사(영어, 수학) / 번역(영어, 프랑스어)
N	여성	63세	대학원 졸업	양호	기혼	X	O	28세	O	심리 상담
O	여성	63세	대학교 졸업	양호	기혼	X	O	39세	X	노인정서 치유
P	여성	74세	대학원 졸업	양호	기혼	X	O	45세	X	교육학

주1) 건강 상태에서 기저 질환 혹은 수술로 인해 비교적 양호하지 않은 상태는 △ 표시하였음.

주2) 부모 부양 및 동거 여부에서 주말 방문부양을 하는 경우 △ 표시하였음.

주3) 응답하지 않은 경우 - 표시하였음.

3. 조사 내용

○ 주요 조사 내용 및 관련 질문 항목을 요약하면 〈표 4-4〉, 〈표 4-5〉와 같음.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 대상 사업 담당자) 조사 내용은 크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상위층 사업에 대한 인식,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 차상위층의 특징 및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4-4〉 1차 FGI 대상에 따른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의 차상위층을 위한 주요 사업 및 현황 - 지역 내 주요 자활근로사업(중장년 차상위층 사업/일자리 사업)의 특징 - 자활근로사업(중장년 차상위층 사업/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발굴 방법 - 자활근로사업(중장년 차상위층 사업/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계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 자활근로사업(중장년 차상위층 사업/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층 비율 및 특징 - 자활근로사업(중장년 차상위층 사업/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의 노동시장(민간) 재진입 비율 및 특성
	- 중장년 차상위층 대상 일자리 필요성 인식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의 매력도(참여 유인가) 등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조사 내용은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소득 및 경력형성, 일자리에 대한 요구, 적합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음.

〈표 4-5〉 2차 FGI 대상에 따른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직업명 혹은 주된 일자리 분야, 전공 분야).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주요 활동)하고 계십니까? - 현재 어떤 차상위층 복지를 받고 계십니까?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현재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만족/불만족하십니까? - 활동 시간 및 기간, 활동비, 활동 장소, 활동 내용(역할) 등 만족 혹은 불만족에 대한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	- 은퇴 이후 일자리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활근로사업 혹은 타 기관의 일자리 사업(예: 보람일자리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다른 일자리 사업과 보람일 자리를 비교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하셨다면,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차상위층으로서 일자리 사업(취업) 참여 과정 및 경험(사업의 장단점, 참여했던 소감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사업을 참여했을 때, 소득의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의 정도와 그 이유)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 근로 혹은 구직의지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의 정도와 그 이유) - 현재 소득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대 소득 및 소득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 현재 직업 혹은 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경력개발의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현재 생활만족도/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5점 척도, 5점이 가장 만족이라고 했을 때)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향후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5점 척도, 5점 매우 희망이라고 했을 때)

(표 계속)

〈표 4-5〉 계속

구분		내용
주요 질문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에 대한 요구	• 중장년 차상위층만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층 채용 우대 조건으로 다른 일자리 사업(보람일자리,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과 함께 운영하는 것과 중장년 차상위층만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어떤 것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장년 차상위층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활동 기간 및 시간, 활동 내용, 적정 활동비, 교육과정 수강 등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일자리의 조건 혹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 일자리에 진입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적합 일자리	• 신중년 적합일자리 직무 가운데 중장년 차상위층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직업명)/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와 선정이유) • 보람일자리 사업 가운데 중장년 차상위층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와 선정이유)
마무리질문		•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일자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요구 분석 결과

1.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차상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 가운데 서울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정의, 하는 일, 추진 체계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각종 교육·훈련, 상담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2019년 2월 기준)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도시형 124개, 도농복합형 57개, 농촌형 69개),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에 30개의 지역자활 센터가 있으며 조건부수급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원구(3개), 강서구(2개), 관악구 (2개), 구로구(2개)는 2~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활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취업지원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있고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이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단위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시·군·구 단위에서 자활근로 및 자활사례관리 등을 하는 지역자활센터가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가운데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고 창업 교육,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의 제공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술 보유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지원을 실시함.

1) 강서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중장년 참여자 특징) 참여자의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이 남성 참여자이며 급여, 일자리 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참여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비율이 높고 전체 참여자 150명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년 남성임.

2021년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40대 후반~50대 중반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자활센터마다 참여 연령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강서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전체 150명의 참여자 가운데 중장년이 50% 이상, 그 가운데 남성이 또 7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청년 일자리 자활사업을 확대하면서 20대부터 30대 중·후반까지의 청년들도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와 함께 근무하는 형태이며 같은 중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수급자와 일에 대한 역량, 기술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급여, 일자리 만족감에서 차이를 보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차상위계층만을 위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들과 함께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같은 중장년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조건부수급자와 비교할 때 일에 대한 노동 능력이나 기술력 등에서 크게 차이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불만과 장기적인 일자리로서의 만족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 차상위계층은 약 10% 미만으로 근로 시간 및 급여와 차상위계층의 특성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두 대상이 함께 참여하고 주 평균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참여자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구조를 다시 설정하고 전문화된 자활근로사업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은 센터별로 다르고 강서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대부분의 차상위계층이 1인가구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만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정기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머무는 일자리로 인식하거나 간혹 실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참여하더라도 3개월 정도 근무 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자활사업의 구조상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이 주 평균 40시간이고 급여가 평균 130만 원 정도 인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농촌은 다를 수 있지만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 없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1인가구이거나 취업 전에 잠시 머무는 정도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약 1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의 자활근로사업의 비중도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활근로사업의 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것과 전문화된 자활근로사업을 모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의뢰가 오더라도 (차상위계층은 거의 의뢰하지 않지만) 게이트웨이에 참여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안내 특히 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나서 바로 종결되거나 사업단에 배치를 받더라도 평균 3개월 정도 근무하십니다. 그냥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업급여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활근로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파악한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임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월 평균 130만원이라는 임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생계에 필요한 소득이 중요한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리함.
 - 우선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도 제안해볼 수 있음.
 - 다만 자활근로사업은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므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공동분배(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면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 센터장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폐쇄성과 개방적인 진보적 성향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도 보임.

아무래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따라, 그리고 센터장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성향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지역문제해결(집수리, 규모화된 영농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및 복지제공과 일자리가 결합된 자활근로복지연계사업으로 연계되고 지역 내 가장 큰 일자리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형은 자치구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중구나 종로구와 같은 중심가는 편의점, 소독방역 청소사업, 음식 프랜차이즈사업 등이 활성화되고 강남구는 세차, 제과, 카페 그 밖에 다른 자치구는 지자체-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지역자활센터의 공동 사업/협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자활근로사업은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요구됨.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연령, 건강(질병), 기술 부족, 자녀 돌봄 문제, 별거로 인한 1인가구로 주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약점은 건강, 연령, 역량 부족, 자녀 돌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일자리 영역으로는 '지자체 공공물품 우선구매, 공영 주차장 관리, 골목 청소, 공공기관 소독 방역, 폐자전거 수거, 공원 관리, 서울시 영구임대단지 및 매입주택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스팩 수거 세척, 지자체 차량세차, 정부 양곡 배달, 저소득층 무료 세탁 서비스, 집수리, 지하철 역사 내 지역자활센터 상품 판매장 운영, 코로나 방역물품 배송' 등이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자활사업 안내지침, 임금 문제 등 중장년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수정하여 청년자립지원사업단과 같이 중장년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예산, 전담 실무자를 배치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연계하거나 지자체와 시민조직이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장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의뢰되는 차상위계층 외에도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가 연계함으로써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맞춤형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해 과거의 직업 경험을 토대로 같은 계열 종사자를 모아서 재교육 및 실습,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 이므로 단기적 처방에 대한 예산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시점이고, 기존의 자활근로 사업 모델을 분석하여 예를 들어 기술 중심의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마련 등의 자활근로사업 영역 보완

2)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징) 전체 자활근로자 123명 가운데 차상위 비율은 약 4.9%로 6명이 참여하고 있고 평균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며 대다수의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경미한 문제를 안고 있음.

중장년 혹은 중장년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근로자의 특성은 평균적으로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다수가 디스크, 관절, 당뇨, 시력 문제 등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등 정서적 문제도 다수가 가지고 있고 사업 실패나 보중,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어 공적 부조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 중장년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로의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중장년의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습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대상에 따른 예를 들어 연령별 자활 의욕 고취 방안, 취업 연계 방안,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체계 등 다원화한 목표를 설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를 통한 자활지원 모델 개발이 필요함.

*일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인 문제 혹은 음주로 인한 문제 등을 저하시키고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써 일을 통한 공적 부조 지급,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목표를 두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중장년 차상위계층만을 일자리 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 가운데 중장년 당사자의 적성, 흥미, 경험 등을 파악한 다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사업단 유형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주된 일자리의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을 조직화하여 신규 사업의 운영을 협의 조정하는 방향을 제안해볼 수 있음.

3) 노원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징) 전체 200명의 참여자 가운데 차상위 비율은 5%로 10명이고 차상위계층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없고 연령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월수입이 적고 주거만족도가 낮으며 남성 1인가구가 대다수임.
 - 기초수급자에 비해 취업 경험이 높고 자녀를 학원에 많이 보는 편이며 저축액과 채무액의 차이가 없음.
 - 자활근로사업을 복지일자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자활기업의 경우 1년에 1개의 자활기업이 창업하면 3명 중 1명이 차상위계층이지만 자활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주민 간 갈등이 많으며 힘든 일은 기피하는 특성이 있음.
- 자활근로사업은 5대 표준화 사업 모델 개발 이후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시대의 흐름을 담는 사업이 요구됨.
 - 각 지부와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은 있으나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랜차이즈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을 최근에 보임.
 - 지역자활사업은 지역 내 문제 혹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지역연대조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분야로 창업으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점차 외면될 우려가 있음.
 - 즉,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을 넓히고 인적 자본 향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등 모두 포함)의 운영 혁신이 요구되고 5대 표준화

사업 모델과 같이 시대적 흐름을 담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으나 5대 표준화 사업 모델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모델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와 더불어 자활근로사업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지부와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은 있으나 최근에는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단으로 창업해야 하는 업무의 어려움과 창업 비용의 부족, 본사의 전문적인 매장 관리 및 사업 참여주민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자활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역연대조직과 지역사회 해결과제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 진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빈곤문제를 포함한 지역 내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활센터의 역할은 점차 외면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노원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추진 중이고 5대 표준화 사업을 기반으로 편의점 사업과 노원구청의 위탁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 가치지향, 사회적 경제기업들과의 협력, 지역사회 협력, 사회적 환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경제적 성과는 매출 성과, 자활기업 창업으로 고용 성과, 자활사업단 참여로 노동의 기회제공, 정서적 지원, 인적자본 획득 및 향상의 성과를 추진함.
 - 혁신 성과는 지역사회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참여에 참여하고 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공제회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조활동 지원 등을 의미함.
 - 노원구청의 위탁 사업은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도서관 책배달서비스와 연중 사업인 뒷골목청소사업은 노원구 3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노원구 전역으로 분할하여 유상 위탁 사업으로 실시함.
 -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참여 주민의 사회적 자본 향상과 관계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에 자활근로사업이 참여하며 도시락 반찬서비스, 돌봄 바우처사업, 주민협동회(구 공제회)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화 일자리 개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현장에서 높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판단됨.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보다 세분화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시급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연령, 경력단절,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동료관계 미흡,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 기피 현상 등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중장년 차상위층의 일자리 안정과 사업에 대한 당사자의 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일자리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설문조사를 통해 고학력자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중장년 차상위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청년자활사업단과 같이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취·창업을 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자산 형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창안제도를 공모방식으로 운영하여 이를 자활사업단과 연계하거나 개인의 창업으로 연계하여 창업 지원을 도모함.

4) 도봉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징) 전체 224명의 참여자 가운데 차상위 비율은 약 10%로 24명이고 차상위계층의 80%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그 중에 1인가구 비율 역시 80% 이상임.
-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실업은 단시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일자리 제공이 필요함.
 -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장기화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제적·재정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과 문제성 음주, 가족 해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중장년 차상위계층 가운데 기존 경력 혹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요구됨.
 -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력 혹은 기술, 전문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는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서울시 자활지원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촉진자 수당 지급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밖에 지역사회공헌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과 연계하여 기술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함.
- 정부 및 지자체는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 예비 자활기업사업, 특별 사례 관리 등을 전개하는 것도 요구됨.

5) 성동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징) 50대 중반과 60대가 많은 편이고 대부분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함.
- 자활근로사업은 최대 5년까지 참여 가능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에 실패하면 다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참여 경험이 적고 건강할수록 민간 고용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음.
 -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은 참여 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근로한 만큼 돈을 받고 의료, 주거 등의 혜택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인가가 없음.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차상위계층이 된 배경, 중장년 차상위 계층의 역량과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매칭,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음.
-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근로 소득 이외의 혜택이 없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편의점, 음식점, 청소 등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으로의 연계가 어렵고 다양한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배적이었음.
 - 대부분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인 노동 강도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기 근로를 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까지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더불어 정신적 활력을 복돋을 수 있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고취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6)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징) 총 11개의 일자리가 있고 110명의 참여자 가운데 차상위 비율은 약 10%로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중장년(5060세대) 1인가구가 많은 편이고 성별은 남성 70명, 여성 40명으로 구성됨.
- 점차 미혼의 50대 이상 1인가구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근로 동기와 근로 의욕이 약한 편이고 상향된 일자리를 가고자 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수급 유지를 고집하려는 경향이 강함.
-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참여자가 대다수이고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에 편승되어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미비하고 이전 근로경험은 주로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대부분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한 직종에 종사하였더라도 산업이 쇠퇴하고 직장이 폐쇄되어 실직한 참여자도 많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특성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편이라는 점인데 이는 사업단 성격에 따라 사업단의 매출 중대가 참여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7명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많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은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생계수급자로 전화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됨.
-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를 자활근로사업 내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도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대상자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그 자격이 선정되므로 소득 증가를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는 구조임.

- 따라서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상위 자격 선정 기준 취소를 위한 소득 초과구간을 높이거나 의료비 경감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1순위인 조건부수급자는 의무 참여 대상자로서 본인 의지가 있다면 65세 이전까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최소 생계비와 주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지속해야 하는 자활근로사업의 한계점과 민간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사이에서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동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가 개발되어 참여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의 내용을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소득 및 경력 형성,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로 구분하여 참여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참여자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서울시50+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자치구 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자활 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음.
- 다만, 참여자의 직업가치관, 총 소득, 월 소득, 자산 형성 정도가 상이하지만 다음의 FGI 결과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함(예: 같은 활동비를 받더라도 활동비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은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음).

1) 참여자 A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의 일자리는 영역은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의 보람일자리 사업은 직무가 다양하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으며, 보람일자리 사업은 목적, 내용, 방법, 해당 업무의 담당자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자활센터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적었고 업무 영역이나 체계가 분명하지 않아 누구에게 묻고 배워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보람일자리의 경우 담당자가 있어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 효과는 미비했으나 도움이 되므로 계속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며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함.

일자리 사업이 사실 소득 향상의 효과는 경미하고 가정 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좌절했던 마음을 조금은 위로 받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생기고 구직의지도 약간 증진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취업 확률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막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경력직을 구한다고 하여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노동시장은 점차 더 많은 더 고도화된 경력, 자격, 기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일자리 참여 기간이 짧아 부족하여 적절하지 않음.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차상위층을 위한 전직지원 전문가, 복지 관련 일자리, 노후 설계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차상위층을 위한 전직지원 전문가) 제가 경험해보니 보통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 직업에 대한 상담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차상위의 경우 복지 상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복지 탈락이 생길 수 있어서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알려주는 기관 혹은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40년도 넘은 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보다는 직업상담사 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갖춘 차상위층을 위한 전직지원 전문가 양성을 통해 재단에 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과정까지 함께 제공하거나 교육비 지급 등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관련 일자리: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돌봄, 주민센터 내 복지 관련 업무 등) 어려운 처지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돕다보니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또 다른 일의 만족도가 생기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밖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50+복지파트너와 같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을 위한 노후 설계 관련 일자리)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보니 건강관리, 인간관계, 노후설계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다가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노년플래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드론 전문가) 2022년부터 드론 실명제가 시행되고 자격증 취득 체계도 정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보면 앞으로 드론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고용안정망 보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특화 일자리 사업, 교육비 지원 제도 혹은 교육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함.

고용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이후의 노후설계든 계획이든 세울 수 있는데 고용이 흔들리다 보니 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제일 필요합니다.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새로운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기술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로의 재취업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한 혹은 교육비 지원 제도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차상위층을 채용 우대하는 경우, 차상위층이 아닌 중장년은 또 다른 불이익 혹은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층이 되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 경제적 생활이 대부분 나아지는 것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 차상위층 특화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채용/일자리 조건 및 생활 지원 요구)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소되고 가구 수에 따라 지원되기를 희망함.

일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비 지원과 주3일 근무,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활동비면 저는 만족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복지 혜택이 탈락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삶의 살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주거비 금액을 가구 수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인 가구 월 80~100만원 지원 희망)

2) 참여자 B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노동 강도가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관의 정규직 지원과의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일의 기능적인 측면, 생산의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무 수준을 조정해야 함.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의 업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단순한 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생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단이 지향하는 방향과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소득의 향상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후의 경력개발 가능성은 어렵다고 판단됨.

이 활동비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는 없지만 소득 향상 효과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활동비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일을 더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구직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피로하다보니 경력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다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등의 계획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찾아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차상위층이 아닌 중장년의 경우, 재단에서 함께 교육과정도 수료하고 여유로운 경제적 조건에서 시간을 내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보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차상위층에게 보람일자리 사업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개인적으로 주된 일자리 경험/전공과 연계된 일자리를 희망하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생명력 있는 인문학 강의(가제)',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등의 영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년 차상위층의 주된 일자리 혹은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일에 대한 마음 상태와 준비도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 교육·훈련이 일자리 참여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구청 및 주민센터로 부터 소소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동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 자체에 경제적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차상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가졌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마음 상태, 생각, 준비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른 층위와는 다르게 중장년 차상위층은 정서적 교육·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서적 안정감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참여자 C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타 일자리 사업(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비해 보람일자리 사업은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됨.
- (소득 및 경력 형성) 보람일자리 혹은 50+인턴십 등 일자리 사업 이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연계가 필요하고 활동 기간 및 시간, 활동비를 변경(증가)하는 것이 요구됨.

소득이라기 보단 말 그대로 활동비에 그치고, 활동기간 및 시간, 활동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생계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보람일자리 사업이나 50+인턴십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연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보람일자리 사업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 혹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참여자B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와 더불어 신중년 적합직무 가운데 중장년 차상위층에게도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자리를 추천하였음.

신중년 적합직무 가운데 '경영·진단 전문가, 인사·노무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는 중장년 차상위층에게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는 컨설턴트 활동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국토순례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보람일자리 혹은 자활사업의 근거 즉,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단체를 설립하여 몬드라곤과 같은 연대의 장을 만들어 주길 희망하고 단순히 중장년 차상위층을 위한 분리 운영보다는 지속성을 고려한 분리 운영이 필요함.

몬드라곤과 같은 재단 소속의 단체를 만들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기회균등에 차별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사업을 운영 측면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참여 이후 지속성에 대하여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참여자 D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구직 의지도 높아지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웠던 참여 경험을 하였음.

주변 분의 권유로 알게 되어서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일자리였습니다.
일하는 동기부여도 좋았고 정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모두 만족했습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참여자D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당시 소득 효과도 있었고 만족스러웠지만 현재는 고정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보람일자리 혹은 자활사업 등의 일자리 참여 사업은 징검다리 역할로 적절하고 중장년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됨.

이런 일자리 사업은 징검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을 참여할 때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겸손한 태도, 맡은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확장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동영상 촬영, 편집 등 영상 관련 일자리 영역을 중장년 차상위층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일자리 자체보다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비와 교통비 등의 부수적인 지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공간과 일에 대한 의욕,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함.

5) 참여자 E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소셜프로모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서울산업진흥원(소셜헤드헌터), 농림수산식품부(농업회사법인 전문인력) 등의 참여 경험이 있음.

소셜프로모터, 소셜헤드헌터 그리고 보람일자리는 사회공헌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고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좋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은 재취업 일자리 참여 성격이 강했으며 직무경험을 활용하여 참여 기업에 도움을 준 일이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사회공헌 일자리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소득 향상 효과는 미미했지만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참여 시에는 소득 향상 효과가 있었고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강의나 전문위원 활동 등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저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절박함은 다소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서 일자리 사업 참여의 경험과 관계없이 근로 및 구직의지를
증진하는 효과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프로모터, 소셜헤드헌터, 보람일자리로는 소득 향상 효과가 미미했고
이 밖의 일자리 사업을 참여했을 때는 소득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영업, 영업기획, 마케팅 업무 등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강의도 하고
전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일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보람일자리는 노동시장(민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일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보람일자리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데 너무 단기간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과거의 업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중장년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중장년 차상위층의 주된 일자리 및 이전 경력 및 경험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보람일자리이외에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중장년 차상위층 채용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것과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기를 희망함.

6) 참여자 F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보람일자리를 포함하여 타 기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집과 가까웠고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대면 업무였으므로 참여하게 되었음.
- (소득 및 경력 형성) 일자리 참여로 인해 소득, 근로 및 구직 의도 향상 효과가 있지만 생활을 이어가기에 부족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자리 사업 참여만으로 다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생각보다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 향상 효과는 있습니다. 근로와 구직 의지도 강하지만 현재 소득에는 불만족합니다.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중단되고 구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은 문화·예술 분야여서 계속 이 분야에 소양을 쌓고 관련된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주된 일자리 이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내가 이 분야와 맞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 정도임.

내가 이 분야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경험이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때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고, 일을 마친 후 본격적인 일 활동을 할 때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중장년은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가운데 세대로서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일자리도 희망함.

세대통합 일자리, 중장년은 어린 아이, 학생, 청년 세대와 노인 어르신들까지 두루 어울릴 수 있는 가운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사와 같이 조연이나 충고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 우여곡절을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진심어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행 기획 관련 직업을 희망하고 예약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아 여행사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중장년 차상위층에게 가장 시급한건 생활비 문제이고, 하루과정이라도 활동처에 직접 방문하여 직업체험과정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며 청년에게 적용되는 일자리 지원 정책과 같이 중장년에게도 복지혜택,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 적용이 필요함.

충분하지 않은 활동비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생활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면 좋겠지만, 다른 일자리도 참여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차상위층이 있을 수 있어 보람일자리의 활동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특화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채용 우대조건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려면 그 분야가 그 직업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과정이라도 직업체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에게 해주는 정책의 범위를 넓혀 복리 적금 지원과 같은 정책을 중장년에게도 적용해주길 바랍니다.

7) 참여자 G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해소되어 활력을 느낄 수 있었음.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을 연계하는 일자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일자리이고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특히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연계해주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말벗서비스, 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고 지원하는 일자리 등이 소득과 보람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8) 참여자 H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노인요양원에서 실버오감 놀이지도사로 실버체조, 노래, 율동, 동화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을 했고, 지역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 동화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

2인1조로 노인요양원에서 실버체조, 노래, 율동, 동화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수고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는 지역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 동화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냥 일이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좋았고 일의 보람도 느껴서 만족합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보람 있는 일을 통한 소득이 생겨 만족하지만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서 경력을 형성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김.

일자리 사업을 참여했을 때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소득이 더불어 생기니까 만족하지만 어르신들이 수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수업 교구나 소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비해 활동비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실버오감놀이지도사와 같은 일자리가 보다 발전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이 분야에 경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후 민간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도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노인 관련 일자리 예를 들어 실버오감놀이지도사, 동화스토리텔러, 마을역사 스토리텔링 등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이는 마을 보안관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실버오감놀이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어르신정서케어 관련 교육,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 및 교구 만들기 사업 등이 필요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이기를 희망함.

9) 참여자 I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연령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자활일자리는 일자리 영역이 많지 않으며 은퇴 후의 삶이라는 기대보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여 보람일자리 사업까지 참여하게 됨.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단기 알바 정도 참여할 수 있었고 제 나이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활일자리는 자리도 잘 나지 않을뿐더러 사업의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보람일자리는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에 처음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람일자리는 활동 내용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서로의 요구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참여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사전에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대부분 대기 상태여서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활동처에서는 일을 시키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가끔 예민하게 내치기도 하는데 외부 사람이기도 하고 잠시 다니다가 그만 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 이해는 합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기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보다 소득향상 효과가 있었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기에는 활동 기간이 짧음.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었기 때문에 보람일자리를 참여했을 때 소득 향상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총소득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고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잘했는지 이 분야에 계속 도전해도 괜찮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구직자에게는 기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별다른 자기 계발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모집공고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일과 많이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개발의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활동 기간이 짧아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민간 기업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고 우선이므로 보람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노인인구 및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인인구 증가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넓은 의미의 돌봄이나 상제 관련 서비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도 늘어나면서 반려동·식물을 찾는 사람이 많으므로 관련 서비스 제공도 좋겠고,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이틀테면 비접촉·비대면 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앞서 언급한 일자리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차상위 자격을 탈락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장년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차례 교육과 교육을 받아 보았는데 시장에서 이미 포화상태여서 늦었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심지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모두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도와 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품정리인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상제서비스 관련 교육, 청소와 분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반려동물 산책도우미라고 한다면 동물 행동 관련 교육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차상위층 자격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일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격을 포기하자니 일을 다니더라도 생활이 어렵고 이런 점을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10) 참여자 J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지금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마음 아픈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흡족하고 보람을 느낌.

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서 오래 일어서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일자리 선택 시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마음이 다치고 아픈 분들이다 보니 상담 후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흡족하고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말 그대로 활동비이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활동비 인상을 희망하며 연령 제한이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을

경력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

말 그대로 활동비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소득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 및 구직 의지는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근무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만족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활동비 인상이 되길 바라고 소득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용보험이라도 가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경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년을 사회에서
계속 고용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경력개발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신중년 적합직무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 중장년 차상위라고 해서 모두 경력, 역량, 건강 상태가 같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기반으로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야 함.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다른 것보다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복지(무상 지원)보다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기를 기대함.

먹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도 살 수 있다지만 주거가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월세를 감당하다 보면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복지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활동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중장년 차상위층에게도 훨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 차상위층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참여자 K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성장, 경험의 나눔 등의 질적 향상이 있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을 할 수 있어 네트워크가 형성됨.

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나 구청 일자리 공고를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일자리는 활동가가 함께 모여 준비하고 활동 후 평가를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성장,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질적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같은 연령대와 같은 이유로 자원했기 때문에 활동의 소득보다는 그 모임 자체가 즐겁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일자리가 내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모르니 이러한 점이 불안합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활동비는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 및 구직 의지는 있으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되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여러 직업을 찾아야 하다 보니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됨.

현재 참여하는 일자리의 활동비는 용돈 정도이기 때문에 소득의 향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및 구직 의지는 있지만 안정적 소득으로 연계하는 가교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기간 및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고 지금 기간이 한정적이고 연속성도 없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에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지속적이지 않다보니 경제에 지장이 많고 다른 일자리 사업을 계속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 적절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업 관리가 요구됨.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경력형 일자리, 고령화 사회에 맞는 어르신 관련 일자리, 그리고 유아 대상의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중장년 차상위층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케어 예를 들어 어르신 정서 케어, 말벗, 이야기 활동가, 멘토링, 놀이 활동 등과 유아 대상 그림책 지도, 스토리텔링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공헌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모델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보람일자리를 참여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 사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 경력을 이어가면서 자아실현과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실버 지식 전달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연계의 교육, 멘토링 등이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단타성 일자리 사업이 너무 많아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 참여자 L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 일자리는 집에서 가깝고 봉사하는 기분이어서 보람을 느낌.
- (소득 및 경력 형성) 소득의 향상이라고 하기에 활동비가 많지 않으므로 용돈 정도로 보탬이 되고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의지 효과에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겠으나 기업과의 연계,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보람일자리가 충분히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과의 연계, 기업의 참여도 있어야 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 차상위층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하고 보람일자리가 봉사와 보람을 쌓는 일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중장년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와 같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이 돌봄 사업 등의 사회봉사적인 일자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심함과 다양함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중장년 차상위층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문가, 상담 전문가, 직업 상담사, 감정 전문가 등
아기 돌봄에 관심이 높고 적성이 맞기도 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어린이 돌봄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안전요원과 같은 사회봉사적인 일자리도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다양한 일자리, 지속성이 높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삶을 계획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함.

13) 참여자 M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활동 기간이 짧고 활동 시간도 일주일에 5일 동안 3시간씩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옴.

활동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너무 짧고, 시간이 매우 애매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3시간씩 일을 하는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라서 저의 생활을 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장애인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위한 교육도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점입니다.

- (소득 및 경력 형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스스로 인문학, 컴퓨터 등을 학습하고 노력하게 되고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됨.

소득은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긴장을 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 접촉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뭔가를 더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인문학 등을 공부하면서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구직 의지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 등을 통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검색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 후 경력 개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흥미와 적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 수학, 영어 등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거나 초등생 돌봄 일자리를 희망함.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활동에 앞서 교육이 요구되는데 그 교육이 형식상의 교육이 아닌 활동처의 특성, 구체적인 일의 종류, 일의 강도, 책임감과 같은 태도를 강조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함.

활동에 앞서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상의 교육이 아닌 일하는 곳의 특성, 구체적인 일의 종류, 일의 강도,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적성에 따라 현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과 연령 제한을 철폐 해 주었으면 합니다.

중장년 차상위층만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차상위층만을 고용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자리는 차상위층만 지원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4) 참여자 N

- (주된 일자리 이후 참여했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 여러 차례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고 보람일자리는 활동 기간 및 시간이 짧다는 점이 불만족임.
- (소득 및 경력 형성)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다른 일도 찾아보려는 의지가 생김.

확실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활동하면 소득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다른 일도 찾아보려는 의지가 생겨 구직 의지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노동의 단절을 예방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가는 발판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징검다리 역할로 적절하다고 인식함.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람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노동의 단절된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노동시장으로 가는 발판으로써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적합 일자리는 개인의 경력과 관련된 일자리 혹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들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와 같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현재는 경력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경력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직업을 특정하게 희망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구하고자 하기에 현재 보람일자리처럼 크게 어렵지 않은 일들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일자리는 시민들을 도와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 분야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 사업 포함)의 활동은 기간 및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연장이 요구됨.

현재 보람일 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생겨 생활비에 보태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력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찾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람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시간과 기간이 짧기에 지금보다 연장된다면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 참여자 O

- (소득 및 경력 형성) 소득 향상 보다는 내적 강화를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노인정서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노인복지의 다양함을 세부적으로 전문화하여 경력 개발을 하는 목표를 설정함.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보람일자리는 일회성 참여하는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로 적절하지 않음.

보람일자리는 지금까지 일회성의 역량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교육이 결여되어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생각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유아 돌봄 영역과 어르신 케어 관련 일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빈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아 돌봄 영역(동화스토리텔러, 그림책 케어 등)과 노인정서 치유 프로그램, 노노케어 등 어르신들의 고독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면서 중장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는 이렇게 두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연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내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16) 참여자 P

- (소득 및 경력 형성)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감은 크지만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 자료 및 교구에 소비되는 비용이 크다는 부담이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문학 정서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노인 관련 일자리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함.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로의 적절성) 보람일자리 뿐만 아니라 자활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연계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되므로 징검다리 역할로는 적절하지 않음.
- (중장년 차상위층 적합 일자리 영역) 노인 관련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노인정서 치유 프로그램, 노인 글쓰기(나만의 책 만들기) 등 일자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층 일자리 관련 요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인생 후반기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00세 시대에 중장년은 청춘입니다. 직업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보람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개인은 자존감을 높이고 밝은 사회구현과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3절

소결

1.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 (자활근로사업 중장년 차상위계층 참여 비율)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하고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평균 약 10% 미만임.
 - 한 기관(5060세대)을 제외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중장년 참여 비율이 높고 대부분 남성, 1인가구였음.
 - 사업 실패, 보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혼, 사별 등으로 대부분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신용 등급이 낮으며 공적 부조 지원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활근로사업 참여율 저조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원인으로 꼽았고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경력 및 역량 수준을 고려한 특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청년자활사업단과 같이 중장년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고 중장년 차상위 자활근로사업단 구성이 요구됨.
 -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 가능한 자활근로사업의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 즉, 특화 일자리가 직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를 의미함.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자활근로사업의 임금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참여율이 낮은 이유였던 임금에 대한 문제점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선정되는데 소득이 선정기준 초과 시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므로 소득 증가를 반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층 선정 기준을 취소하는 소득 초과구간을 조정하거나 의료비 경감 혜택 기간 연장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은 맞춤형 사례관리 및 근로 능력 유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임.
- 중장년 차상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과거 직업 경험을 기반으로 동종 계열 혹은 전공자가 함께 재교육 및 실습을 받거나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적용하는 거도 하나의 방안으로 사료됨.
- 취·창업 시 일정기간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별도 자산형성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제안함.

2.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일의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보람일자리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지만 소득(활동비)이 가장 불만족 요인임.
- 보람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이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년 차상위의 경우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개발 혹은 인생 후반기 계획 수립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봄.
- 활동비 인상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혹은 건강보험, 주거비 지원 등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적용해주길 희망함.
- 보람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보수도 낮지만 업무 영역의 책임소재 담당자가 분명하여 소통의 불편함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고 업무 영역 및 체계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짐.
-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이고 일자리 제공과 함께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희망함.
- (중장년 차상위 적합 일자리) 기존 사업에서의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것과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타 일자리 사업에서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자격지심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사업도 반드시 필요함.
-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 차상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직 혹은 근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자존감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에 요구되는 역량개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연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범위를 넘어 중장년 차상위 특성(예: 주된 일자리 경험)과 구직 준비, 재취업 및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준비 상태, 요구 등을 파악한 일자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적합 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상담 관련 영역으로 상담전문가,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50+컨설턴트
 - 영·유아 및 어린이와 노인 돌봄 영역(경로당복지파트너, 사회복지사)과 교육 관련 영역(진로체험코디네이터, 청소년시설50+지원단, 다문화학습지원 등)
 - 안전 및 치안 관련 영역으로 밤길안전요원, 마을보안관, 공원활동가 등
 - 여행 관련 영역으로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및 해설사 등과 문화·예술 영역(문화예술모니터링)
 - 자신의 전문성 및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영역(경영 진단 및 인사노무업무, 광고홍보 전문가 등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반려 동·식물 관련 영역, 비대면 증가로 인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 등
- 보람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 참여 이후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보람일자리사업 혹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후 민간 노동시장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참여 기간이 길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직 의사가 매우 낮음.
 -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이 자격증 취득이나 재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함.
 - 다만 사업에 참여해봄으로써 재취업(구직) 동기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제 5 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제5장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제1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 도출하고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중장년 차상위계층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사업(사례)에 대한 문헌 고찰 결과와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을 개발하였음.
 - (1안)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 채용 우대조건 적용
 - (2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및 적합 일자리
 - (3안)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
-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음.
 - 중장년 일자리/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담당자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 3인, 중장년 일자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 3인,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당사자 2인, 총 8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 1안은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및 활동 조건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매겨 2022년 보람일자리사업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과 다른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2안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 보람일자리를 비롯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추가 적용 가능한 적합 일자리 영역과 직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음.

- 3안은 새로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더불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하였음.

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조건(1안)

- 1안의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 채용 우대조건 적용’은 기존의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 일자리 모델로 제안하였음.
- 채용 우대조건은 ‘참여대상의 범위, 활동기간 및 시간, 활동비’로 구분하여(〈표 5-1〉 참조) 적절성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점: 적절하지 않음, 3점: 적절함, 4점: 매우 적절함)로 측정하였고 각 구분에 따른 우선순위를 작성하도록 설계하였음.

〈표 5-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채용 우대조건(안)

구분	내용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1 취업취약계층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고용노동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저소득층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60~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 제공) 중장년 기준 적용
활동시간	• 월 57시간 이내
	• 월 60~100시간(주 15~25시간) *2021년도 지역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기준 적용
	• 월 60~120시간(주 15~30시간)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기준 적용
활동비	• 525,020원=57시간×9,211원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 (2021년 기준 10,702원)
	•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 + 4대보험 적용 *현재 장애인시설지원단을 제외한 사업은 상해보험 가입만 적용
	• 최저임금 적용(2021년 기준 8,720원)
	• 월 100만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준에 상응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 중장년 차상위층 가구 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마련

주)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에서 적용 중인 조건은 음영 처리하였음.

- 참여대상의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표 5-2〉 참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1순위로 우선순위를 매긴 비율이 37.5%이었음.
- 현장 전문가는 가능한 한 많은 중장년 차상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의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로 수렴되었음.

〈표 5-2〉 참여대상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구분	내용	적절성	우선순위		
			현장	연구	당사자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4	●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6		●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3	●		
	• 기준중위소득 60~100% 이하	2.4	●		

- 현재 보람일자리 활동시간은 월 57시간 이내이지만 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으며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성도 제안함(〈표 5-3〉 참조).
- ‘월 60~120시간’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월 60~100시간’을 1순위로 우선순위를 매긴 비율이 절반이었고, 모든 전문가 자문단이 월 57시간 이상으로 활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80시간, 월 100시간, 월 120시간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였음.
- 더불어 활동기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함.

〈표 5-3〉 활동시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구분	내용	적절성	우선순위		
			현장	연구	당사자
활동시간	• 월 57시간 이내 (현재)	1.4			
	• 월 60시간~100시간(주 15~25시간)	2.8	●	●	
	• 월 60시간~120시간(주 15~30시간)	3.1		●	●

- 현재 보람일자리 활동비는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보완이 요구되는 것에 있어서 모두 동의하였고 활동시간 및 4대보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음(〈표 5-4〉 참조).
-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 + 4대보험 적용’을 1순위로 우선순위를 매긴 비율이 절반이었으나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이 2.9점으로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았음.
-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 활동시간으로 조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조사 결과 가구 수 불문 희망 월 소득이 평균 100만원이었고 가구 수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제 사업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됨.

〈표 5-4〉 활동비에 대한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구분	내용	적절성	우선순위		
			현장	연구	당사자
활동비	• 525,020원=57시간×9,211원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현재)	1.9			
	•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 (2021년 기준 10,702원)	2.9			●
	•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변경 + 4대보험 적용	2.8	●	●	
	• 최저임금 적용(2021년 기준 8,720원)	1.9	●	●	
	• 월 100만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준에 상응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2.1			
	• 중장년 차상위층 가구 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마련	1.9			●

- 이 밖에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자녀 유무 혹은 장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일정 비율을 차상위계층에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한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은 <표 5-5>와 같이 ‘참여대상의 범위, 활동기간 및 시간, 활동비’ 등의 조건을 수정하거나 고려해볼 수 있음.

〈표 5-5〉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채용 우대조건(안)

구분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참여대상	-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활동시간	월 57시간 이내	(1안) 월 60~100시간 + 최소 6개월 이상 (2안) 월 80시간, 월 100시간, 월 120시간 중 선택 + 최소 6개월 이상
활동비	525,020원=57시간×9,211원 1일 1만 5천원의 교육실비, 상해보험 가입	(1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4대보험 적용
기타	-	- 중장년 차상위 일정 비율 할당제 적용 - 중장년 차상위 특성 및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상태, 청소년 및 장애인 자녀 동거 여부, 부모 부양 여부 -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 - 주된 일자리 경험 및 전공, 희망 직무, 직업 가치관, 재취업에 대한 태도 등

주)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에 적용 가능한 변경된 채용 우대조건은 파랑색으로 처리하였음.

2.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및 적합 일자리(2안)

- 2안의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및 적합 일자리’는 대상 특화 일자리 사업과 새로운 적합 일자리 영역 및 직무를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적 일자리 모델로 제안하였음.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모두 대상 특화 일자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참여자(당사자)가 제안하였던 새로운 적합 일자리 영역 및 직무의 적절성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점: 적절하지 않음, 3점: 적절함, 4점: 매우 적절함)로 측정하였고 각 구분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김.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사업은 인식 및 요구조사 결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중장년 차상위 당사자가 대상 특화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
 -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며 채용 우대조건(1안)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그 이유는 대상 특화 일자리를 참여하는 경우 그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낙인 효과와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특화 일자리를 추진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부족하거나 명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채용 우대조건(1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참여자(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인식 및 요구조사 결과 희망 일자리 영역 및 직무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및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표 5-6>과 같음.
 - 희망 일자리를 ‘경영·사무, 교육, 돌봄·복지, 문화·예술, 상담, 안전·치안, 여행,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의 여덟 가지 영역과 총 42개의 일자리 영역 및 직무가 도출되었음.
 - 총 42개의 일자리 영역 및 직무는 기존 재단의 일자리 및 보람일자리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임.
 - (일자리 영역)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안전·치안 영역(3.0점)이었고, 여행(2.5점), 돌봄·복지(2.4점), 교육(2.2점), 문화·예술(2.1점),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2.0점), 상담(1.9점), 경영·사무(1.9점) 순으로 나타남.
 - (희망 일자리/직업명) 밤길안전요원이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마을보안관(3.0점), 마을역사 스토리텔링(3.0점), 공원활동가(2.9점), 실버오감놀이지도사(2.8점), 시니어이야기 활동가/말벗(2.8점),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2.8점), 반려동·식물 관련 영역(2.8점) 순으로 나타남.
 - 현장, 연구, 당사자 모두 우선순위를 1순위로 선택한 일자리는 ‘마을역사 스토리텔링, 반려동·식물 관련 영역, 다문화학습지원’이었음.
 - 반면에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직업명(평균 2점 미만)은 청소년지도사(1.5점), 진로 멘토링(1.5점), 직업상담사(1.6점), 빅데이터 전문가(1.6점), 광고/홍보(1.6점), 심리 상담사(1.8점), 드론전문가(1.8점), 전직지원전문가(1.9점),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을

돕는 컨설턴트(1.9점), 경영 지원(1.9점), 인사/노무(1.9점), 감정전문가(1.9점), 산업 카운슬러(1.9점), 자서전 글쓰기 지도(1.9점)였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상담, 진로지도 등은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중장년 차상위(당사자)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일자리 참여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도 희망하였지만, 전문가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 따라서 현장, 연구, 당사자 모두 우선순위를 1순위로 채택했거나 적절성 평균 3점 이상인 일자리 영역 및 직무는 마을역사 스토리텔링, 마을보안관, 반려동·식물 관련 영역, 밤길안전요원, 다문화학습지원, 실버오감놀이지도사,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 노노케어와 같은 시니어 돌봄임.

〈표 5-6〉 중장년 차상위 적합 일자리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결과

구분(영역)		희망 일자리/직업명	적절성	우선순위(1순위)		
				현장	연구	당사자
돌봄 복지	시니어 돌봄	실버오감놀이지도사	2.8	●		●
		시니어이야기활동가/말벗	2.6			
		노노케어	2.8	●	●	
		실버 관련 지식 전달 일자리	2.5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 (예: 상제 유품정리)	2.8			
	아이 돌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어린이 돌봄	2.1			
	공통	동화 스토리텔링	2.1	●		
		사회복지사	2.0	●		●
		놀이활동가	2.0			
상담	청소년 및 청년	청소년지도사	1.5	●		
		진로멘토링	1.5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2.1	●		●
	중장년	50+세대 동년배 상담	2.6		●	●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2.4			
		전직지원 전문가	1.9			

〈표 계속〉

〈표 5-6〉 계속

구분(영역)		희망 일자리/직업명	적절성	우선순위(1순위)		
				현장	연구	당사자
상담	공통	직업상담사	1.6			●
		심리상담사	1.8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을 돕는 컨설턴트	1.9	●		
경영·사무 등		경영 지원	1.9			
		광고/홍보	1.6			
		인사/노무	1.9		●	
		영업/마케팅	2.1	●	●	
		감정전문가	1.9			
		조사전문가	2.4			●
		산업 카운슬러	1.9			
교육		청소년시설50+지원단	2.6		●	●
		자서전 글쓰기 지도 등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한 것)	1.9			
		자신의 전문 분야를 청소년, 청년 및 동년배에게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	2.0	●		
		청소년 및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예: 국토순례)	2.3	●		
		다문화학습지원	2.3	●	●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반려동물·식물 관련 영역	2.8	●	●	●
		(비대면 증가로 인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2.0			
		드론전문가	1.8			
		빅데이터 전문가	1.6			●
여행		여행상품개발자(기획)	2.0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2.6		●	
		여행사무원(여행예약)	2.1	●		
		마을역사 스토리텔링	3.0	●	●	●
문화·예술		문화예술모니터링	2.1	●		●
안전·치안		밤길안전요원	3.1	●		●
		마을보안관	3.0		●	●
		공원활동가	2.9	●	●	

3.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3안)

- 3안의 ‘새로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교육+일자리 연계)’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사전에 수강한 이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형태로 장기적 일자리 모델로 제안함.
- 인식 및 요구조사 결과 중장년 차상위의 반복되는 실패 경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연령 제한으로 민간 노동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낮아진 자아효능감 등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국외 사례에서도 정서적 상담 및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보람일자리사업은 기초소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람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중장년 차상위계층은 이 밖에 활동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이를 종합하여 <표 5-7>과 같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실버인지돌이지도사’에 적용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5-7〉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 구성(안)

구분	내용	비고
1. 마음챙김 정서지원 프로그램	• 마음챙김에 기반한 힐링 프로그램: 자아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고취 • 기초소양교육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공통과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함.	공통
2. 직무역량강화교육	• 캠퍼스 혹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연계 • (예시) 실버인지돌이지도사 -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인지돌이지도사 과정 수강 - 실버인지지도사 혹은 실버놀이지도사 등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리마인더 교육 실시 → 직무역량강화교육은 교육과정 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음. • 활동처에 대한 이해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직무별 진행
3. 일자리 사업	• 일자리 사업 참여 • (예시) 실버인지돌이지도사 - 사업내용: 시니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치매 예방 전문가 양성	-

〈표 계속〉

〈표 5-7〉 계속

구분	내용	비고
3. 일자리 사업	- 활동인원: 예산에 맞는 인원 설정 - 사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활동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양로원,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 주요활동: 노인회상카드를 활용한 회상 치료, 그림책 인지 프로그램, 전래놀이를 통한 인지놀이, 원예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실버 레크레이션 활동, 시니어 보드게임 등 - 수행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기대효과: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활동의 경험을 더하게 되면 활동처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으로 활동 가능,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원봉사단/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50+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수행 가능	
4. 사후관리	• 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경력 계획을 위한 상담(50+컨설턴트 연계)	공통
	• (예시) 실버인지지도사 - 노인돌봄제공자를 위한 정서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무별 진행

제2절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 활용 방안

- 국가 차원에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과 노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고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이 요구됨.
 - 중장년 나아가 노인이 되어서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과 청년과 중장년 모두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직업소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일부 있으므로 재단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에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를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보다 개별 사업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을 시범 운영하였고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1안으로 채용 우대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음.
 - 하지만 보람일자리 공동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의 운영 목적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50+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 또한, 참여 대상이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로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보람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음.
 - 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서울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은 1안을 적용하여 참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2021년은 총 18개의 보람일자리사업에서 8개 일자리만 중장년 차상위 우선 선발을 적용하였다면 전체 모든 일자리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중·장기적 일자리 모델로 제안한 2안과 3안을 중장년 일자리 사업 내에서 적용하거나 보람일자리사업을 두 개의 경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경험에 그치는 일자리 제공은 중장년 차상위계층에게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3안으로 제안한 ‘교육+일자리 연계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은 활동기간 및 시간이 짧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비가 적고 연속성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참여 동기를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은 교육을 바탕으로 일자리 참여,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함께 사회공헌을 확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는 직종을 특화하는 것이 아닌 중장년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차상위의 특성 및 배경으로 건강 상태, 자녀 양육, 교육 배경, 생계유지 및 자립 가능성, 주된 일자리, 이전 직업 및 경력, 보건 및 복지 지원 연계, 참여 가능한 활동 기간 및 시간 등이 있으며 일자리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하여 특화해야 함.

- 또한, 기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일자리,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 교육·훈련이 필요한 일자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
- 구혜경, 이진명, 장은교, 최아라. (2020).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와 함의: 시장진입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6(1), 97-122.
- 김교성. (2009).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61-87.
- 김희주. (2017). 차상위계층의 특성과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중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류기락. (2014).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분석: 소득보장과 취업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98-138.
- 윤혜란, 김미현, 김승오, 민경연, 윤연옥, 이선화, 이철진, 신선영. (2021).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활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서울광역자활센터.
- 윤홍식, 김혜영, 이은주. (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263-293.
- 이상봉, 한준. (2016).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5, 1-26.
- 이채정. (2013). 자활사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2011년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욱. (2009). 차상위 계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박세경, 손창균, 신현웅, 이태진, 정경희, 최현수, 김안나, 박능후, 이선우, 홍경준, 유진영, 전지현, 유정예, 윤필경.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류정희, 함영진, 김린, 최준영. (2017).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26-3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함영진. (2018).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okayem, C., & Heggeness, M. L. (2014). *Living in Near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6-2012*,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Klevens, R., and E. Luman. (2001). U.S. children living in and near pover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 41-46.

Lewit, E. M., Terman, D. L., & Behrman, R. E. (1997). Children and poverty: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4-24.

Saunders, P. (1996). *Poverty and deprivation in Australia*. Year Book Australia 1996.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기’ 채용공고 Retrieved (2021. 9. 16.) from https://gfin.saramin.co.kr/_service/zlight/apply_site/apply/recruit_default.asp

‘자활기업을 활성화 하고 사람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신문기사 Retrieved (2021. 8. 24.) from <https://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6244937619>

서울시50플러스 2021-020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복지기획관 정상택
편집인	황윤주
연구자 발행처	임소현 이영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ISBN	979-11-89011-63-5(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